

땅속 17년 창고속 14년 빛 못보는 5·18 유품들

舊망월묘역 발굴 태극기·탄피 등 221점

전시관 못지어 5·18센터 수장고 깊은 잠

1980년 5·18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희생자들의 유물 수백 점이 10년 넘도록 수장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5·18 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1997년 5·18 묘역 성역화 사업(국립 5·18 민주묘지)을 추진하면서 구 망월묘역(현재 광주 시립묘지 3묘역)에서 피 묻은 태극기와 시계·구두·열주·안경알·탄피·손수건·마스크 등 5종류 221점을 발굴했다.

당시 이 유물들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됐다가 2003년 10월 28일 5·18 기념문화센터 수장고로 옮겨졌다. 현재 이 유물들은 5·18 기념문화센터 1층 115.7㎡ 크기의 제1 수장고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채 사장되고 있다.

이 같이 귀중한 5·18 관련 유물이 수장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전시할 만한 유물 전시관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97년 유물전시관 건립(60억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나머지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현재 유물 221점 중 시계·태극기·비닐포대·탄피 등 일부 유물만 복제돼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과 5·18 자유공원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귀중한 역사자료가 단 한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수장고에 저장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상징인 광주에 유물전시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또 2년에 한번 꼴로 5·18 유물에 대한 훈증·보존처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복제·전시할 공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센터 제1·2 수장고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수장고에는 1997년 북구 망월동 옛 5·18 묘역에서 발굴됐던 5·18 관련 유물 수백 점이 방치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간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관련단체 관계자는 "5·18 기념문화센터에 5·18 유물이 보관돼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발굴했다고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살아있는 역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문화센터 관계자는 "유물 전시관도 없을 뿐더러 설명 있다해도 원본 전시는 어렵다. 복제품을 전시해야 하

는데, 태극기(1027mm×673mm) 한점 복제 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전시회를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아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만 5세 아동 내년부터 무상교육

유치원·보육비 지원...광주·전남 3만1000여명 혜택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2006년생) 아동을 둔 광주·전남지역 모든 가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3분의 2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수혜대상 아동은 3만1000여 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5면〉

또 이들은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돼 사실상 정부의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

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 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게 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을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3분의 2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

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1만5730명(2010년 말 기준), 1만5392명(2011년 4월 기준)이 무상교육 수혜대상이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시가스료 4.8% 인상 전기료 상반기 오를 듯

지식경제부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해 소매요금이 평균 4.8%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 도입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13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홀수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며, 작년 9월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한 이후 이번이 사실상 처음 가격을 인상했다. 이날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될 예정이어서 다른 공공요금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7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그전에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전기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형뉴스

오바마 "빈 라덴 사살" 시신 수장

미 특수부대 파키스탄 은신처 공격 아들도 사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의 배후 인물로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사진)이 1일(현지시간) 사살됐다고 이날 밤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정 무렵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서 이날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 도중 사살됐으며, 그의 시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 정보 당국이 지난해 8월 빈 라덴의 파키스탄 내 은신처에 관한 믿을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추적해왔으며, 지난주에 빈 라덴의 제거 작전을 단행할 충분한 정보가 확보됐다고 판단, 작전 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와 함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아보타바드의 빈 라덴 은신처를 목표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격이 이뤄졌으며, 헬기군 특수요원들이

투입돼 지상에서 약 40분간 작전을 펼쳤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작전과정에서 빈 라덴의 아들들을 포함,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전인 2001년 9·11테러를 감행해 30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을 숨지게 한 빈 라덴이 제거된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빈 라덴의 사망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빈 라덴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을 향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 우르두어 방송인 두니아 채널은 이 작전에서 빈 라덴의 아이 6명, 부인 2명과 그의 측근 4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외신은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이 이미 수장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당국의 한 관리의 빨리 매장하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과 관습이기 때문에 수장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빈 라덴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 전통에 따라 주검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형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한방스파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쉽터

한울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총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